

올림픽과 社會變動

劉 載 天*

<目次>	
I. 序論	III. 올림픽이 社會에 미친影響
II. 스포츠의 社會學的 意味	1. 政治的 影響
1. 社會情緒的 機能	2. 國民統合
2. 社會化의 機能	3. 社會規範 및 秩序에 미친 影響
3. 統合의 機能	
4. 政治的 機能	
5. 社會移動의 機能	IV. 結論

I. 序論

86년의 아시안게임과 88년의 올림픽을 주최한 우리 나라는 ‘體育立國’을 내세울만큼 스포츠에 온갖 노력을 쏟아 왔다. 그러나 스포츠는 우리 나라와 같은 특수환경이 아닐지라도 이미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생활영역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현대인들이 레저활동의 상당 부분을 각종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거나 혹은 스포츠를 관람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스포츠가 현대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 되었는지를 잘 짐작할 수 있다.

스포츠는 각급학교에서 사회의 가치나 규범을 가르치고 신체의 건강을 도모하는 교육과정으로 더욱 그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되었으며, 국가간의 협력과 친선의 관계를 유지하는 주요 수단으로 등장했다. 뿐만 아니라 資本主義體制에서 스포츠는 이제 오락산업의 주축의 하나로 편입되는 등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스포츠가 현대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떠한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통해 잘 드러난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스포츠에 쏟는 관심의 양과 경제의

* 西江大學校, 新聞學

규모이다. 보도매체가 매일 우리에게 제공하는 뉴스 가운데 스포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텔레비전 프로그램, 각종 스포츠 전문잡지, 스포츠 관계 서적과 스포츠를 소재로 한 영화 등이 이 시대가 스포츠에 쏟는 관심이 얼마나 큰 가를 잘 드러내 준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은 신문기사 가운데서 스포츠기사를 세번째로 많이 본다고 한다(경제기획원, 1986). 더 나아가 스포츠 인구와 스포츠 관람자의 수, 스포츠 활동과 관람에 들이는 돈 및 시간의 양은 현대인들이 어떤 활동에 쏟는 그것보다 더 많다는 것이 여러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막대한 매출액을 기록하는 스포츠용품산업의 경제규모는 날로 팽창하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각 시대는 그 시대의 정신과 문화를 상징하는 독특한 건축물을 세웠다. 한 시대의 건축물은 그것의 공리적 가치를 넘어 그 시대의 정신적 의미를 표상하는 것이다. 파라미의 시대, 사원의 시대, 대성당의 시대, 철도역의 시대라 부르는 것은 모두 그 시대의 정신과 문화를 상징하고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20세기는 마천루의 시대로 대표되었다. 그러나 요즈음에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시 스타디움의 시대라 부를 만큼 각종 스포츠 시설물이 세워지고 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예외에 속할 것이나 어느 사회에서나 스포츠 시설물의 건축이 블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공통된 현상이라 한다. 대학마다 짓는 각종 경기용 스타디움, 프로 스포츠산업의 경기장 건축, 지역 사회마다 마련하는 옥외 체육시설과 레크리에이션 센터 등이 모두 그와 같은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스포츠가 생활 속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잡았는가는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言語에서도 잘 엿볼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아들과 딸이 각각 몇인가를 말할 때 곧잘 “투 스트라이크”니 “완 스트라이크, 완볼”이라고 표현한다. 아들은 스트라이크로, 딸은 볼로 비유하는 것이다. 정치에서는 “페어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혼히 말하며, 경쟁에서 패배했을 때 “너 아웃되었다”고 한다. 정치현상에서 “볼은 이제 xx로 넘어갔다”고 표현하며 올바른 방식을 벗어난 행동은 “데티플레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같은 스포츠의 메타포들은 모두 스포츠 이외의 분야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본보기들이다. 말하자면 스포츠 분야에서 미리 만들어진 이미지나 함축을 사용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는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화제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익명성이 지배하는 都市產業社會 속에서 스포츠는 사람들 사이의相互作用을 매개하는 구실도 하고 있는 것이다. (Snyder, 1978:9)

이상과 같이 현대사회에서 스포츠가 지니는 의미와 그것이 수행하는 구실에 견주어 볼 때 올림픽은 단순한 국제친선을 위한 스포츠 행사 이상의 것이 되었다. 올림픽은 인류애와 평화애호 정신을 발양하고자 하는 이상을 넘어 회를 거듭하면서 점차 정치적 의미와 경제적 실리, 그리고 문화의 과시라는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게 되었다. 서울올림픽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만큼 서울올림픽이 국내외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보아야 한다.

이 글은 서울올림픽이 그런 의미에서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의 일부를 스포츠 사회학의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社會科學研究所가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했다. 다만 이 조사가 서울올림픽이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미친 영향을 광범위하게 알아보고자 한 것이었으므로 이 글에서 사용할 자료는 극히 한정된 것이라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조사연구가 올림픽을 전후한 사전 사후조사가 아니라 사후조사결과에 한정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서울올림픽이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를 그 이전과 비교해 볼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해 두어야 하겠다. 다만 이와 같은 한정된 조사자료와 연구가 지니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다른 연구 기관이나 언론기관들에서 행한 여론조사결과를 원용하여 자료의 미비를 보완토록 했다.

II. 스포츠의 社會學的 意味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Stevenson & Nixon, 1979:16-22)

첫째, 社會情緒的 機能 : 이 기능은 개인의 사회심리학적 안정성과 관련된 것으로 개인의 수준에 연관된다.

둘째, 社會化의 機能 : 개인의 퍼스널리티 특성의 발달과 관련하여 사회의 가치나 규범을 개인에게 內面化시켜 주는 기능으로 역시 개인의 수준과 연

관된다.

세째, 統合의 機能: 분리되어 있는 개인들을 집단 속으로 조화롭게 통합하는 기능으로 집단과 개인을同一視하게 만든다. 이 기능은 집단의 수준과 연관되어 있다.

네째, 政治的 機能: 정치적 도구로서의 스포츠와 관련된 기능으로 국가의 수준과 연관된다.

다섯째, 社會移動 機能: 사회적으로 정의된 범주들 사이를 개인이 이동하는 기능으로 개인, 집단, 국가 등 3자의 수준과 연관된다.

이들 기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 社會情緒的 機能

이 기능은 개인의 社會心理學的 安定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의 사회심리학적 안정이란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적응을 의미한다. 즉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심리적으로 사회환경에 잘 적응된 상태에 있다는 뜻이다. 이같은 사회정서적 기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첫째, 긴장과 갈등의 관리라는 성격을 지닌다. 이같은 성격은 스포츠의 정화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즉 스포츠는 일반적으로 긴장, 분노, 좌절에 대한淨化機能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개인의 긴장, 분노, 좌절과 같은 사회심리적 상태가 정화되지 않으면 사회에 유해한 행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정화시켜 주는 스포츠의 기능은 순기능적이라는 관점이다. 경험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포츠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와같은 사회정서적 정화작용이 탁월하게 성취된다고 한다(Keating, 1965:300-306). 이런 의미에서 스포츠를 연극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Nobert & Dunning, 1970:50). 이와 관련하여 스포츠는 개인에게 위험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쁨, 미움, 슬픔과 같은 극단적 정서를 표현할 기회를 마련한다고 한다. 이같은 기능은 비단 스포츠의 참여자에게 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관람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즉 스포츠를 관람하는 동안 스포츠에 내포되어 있는 정서와 대상적으로 동일시하는 방식을 통해 그같은 기능이 수행된다고 한다.

둘째, 스포츠는 集團意識과 同志愛를 창출하는 성격을 지닌다. 스포츠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스포츠는 집단의식, 동지애, 귀속감, 우정, 동반자 의식 등을 유발하는 기회를 마련한다고 한다(Bouet, 1966:137-140). 예컨대 스포츠팀의 구성원들 사이에 강한 집단의식이나 동지애가 형성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상당한 感情的 上部構造가 스포츠와 참여집단에 자주 형성된다는 것도 확실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감정적 상부구조—스포츠협회 후원회, 팬들의 클럽, 응원단 등—is 스포츠의 비참여자들에게도 집단의식과 동지애를 유발시키는 환경과 기회를 만든다고 알려졌다. 예컨대 이같은 상부구조가 스포츠와는 관계없는 댄스파티나 모금파티 등을 주최함으로써 스포츠 비참여자들에게도 집단의식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다.(Schafer, 1968: 63-82)

세째, 의식주의를 재보증하는 성격을 지닌다. 의식주의란 기존의 문화적 신념체계와 사회구조에 대한 참여를 다시 공정케 하며 그와 같은 구조와 신념의 지속적인 존재와 안정을 재보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포츠는 개인의 사회정서적 안정을 통해 그와 같은 의식주의를 재보증하는 원천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2. 社會化的 機能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스포츠는 社會的 價值와 規範을 전파하고 전승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制度로 부각되고 있다. 학교에서 스포츠를 장려하는 것도 정신과 육체의 단련이라는 점과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학생들에게 내면화시킨다는 데 있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체육을 통해 구체적인 어떤 경기를 하는 방식을 배우는 동시에 인생의 게임을 수행하는 방식을 터득한다. 스포츠를 통해 역할이 무엇인지도 배우고 인생살이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도 배운다. 스포츠는 경쟁과 균형 및 훈련을 통한 성취와 성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사회의 보수적인 제도의 하나가 된다. 말하자면 스포츠는 사회가 전통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것과 같은 구조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사회화의 기관인 스포츠는 체력의 단련을 통해 자기수련이라는 정신적 긴장을 제고시키고 충성심과 애타주의적 성격을 형성시킨다. 자기가 속한 팀과 그 팀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나 사회에 충성하고 게임을 하는 동안 동료와 팀을 위해 희생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는

훈련과정에서 自律과 秩序를 터득케 만든다. 또한 경기라는 경쟁은 인생살이에 필요한 불굴의 정신을 고양시켜준다(Edward, 1973:201-219). 또한 스포츠는 사회화의 담당자로서 자기단련을 가르치고 페어플레이를 내면화시켜 주며 권위와 훌륭한 시민을 존중하도록 가르친다는 데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Spreitzer & Snyder, 1975:87-93)

스포츠의 사회화 기능과 관련하여 잊어서는 안될 것은 스포츠의 영웅이 수행하는 구실이다. 누구나 잘 아는 바와 같이 사회화는 보강효과와 모방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스포츠의 영웅은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모범이 된다. 사실상 현대사회에서 스포츠의 영웅은 다른 대중문화의 영웅들과 함께 성공한 기업가나 위대한 과학자와 같은 전통적 영웅을 대치하게 되었다. 이들에 부착되어 있는 가치가 곧 사회화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내면화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오늘의 스포츠 영웅들은 物質主義的 가치의 상징으로 존재하고 있다. 프로 스포츠의 영웅들은 황금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경향은 다른 나라에서나 우리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다. 우리의 경우는 특히 올림픽 등에서 금메달을 확보한 아마 스포츠의 영웅들에게도 막대한 상금을 수여함으로써 스포츠를 물신화하는 위험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스포츠의 영웅들은 물신숭배의 가치를 심어주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스포츠의 영웅들은 사회내에서 보편적인 가치나 지배적인 가치를 보강하는 구실을 한다. 그들은 기존체제의 가치체계에 편입되어 있음으로 해서 지배적인 가치에 대조되는 가치를 반영할 수 없으며 사회변동의 상징이 되지 못한다. 이제 대중의 우상인 스포츠의 영웅들은 정신적 가치와 상관없는 한낱 商品으로 팔리고 있을 뿐이다.

3. 統合의 機能

스포츠가 수행하는 통합의 기능은 분리되어 있는 개인들을 집단으로 조화롭게 통합하며 집단과 개인과를 동일시 하게끔 만든다. 어느 사회나 사회구성원들은 그 사회의 문화적 신념과 행위의 유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이같은 사회의 요청은 직접적으로 사회화를 통해 실현된다. 이에 비해 개인을 집단에 통합하는 것은 그같은 요청에 간접적으로 부응하는 것이다. 스포츠는 개인으로하여금 팀의 멤버가 되게 하거나 혹은 감정적 상부구조에 참여케 함으로써 집단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람들은 개별 팀이

나 학교, 직장, 도시, 지역사회, 혹은 국가의 팀에 참여하거나 그들 팀과 감정적 유대를 갖게 됨으로써 스스로 집단 속에 통합되고 집단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게 된다. 스포츠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에 의해 집단통합과 집단과의 동일시 현상이 나타난다.

첫째, 사회정서적 기능에서 보았듯이 집단의식과 동지애의 형성은 어떤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집단과 자신과를 연상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때의 연상은 집단과의 대상적 동일시를 의미한다. 즉 특정 스포츠팀과 자기와를 대상적으로 동일시함으로써 집단 속에 통합하는 것이다. 한번 특정 스포츠팀이나 선수와 친애하는 감정이 형성되면 그것은 곧 쉽게 집단에 대한 친애하는 감정으로 확대된다.

둘째, 집단을 内集團(in-group)과 外集團(out-group)으로 나눈다면 자기 자신이나 우리로서 동일시되는 내집단과 정서적 유대가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이 때 외집단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적 감정은 그 집단을 적으로까지 삼게 된다. 우리 나라의 프로야구에서 가끔 보이는 지역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강한 편애와 타지역팀에 대한 심한 거부반응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4. 政治的 機能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스포츠의 정치적 기능은 앞서 말한 집단통합의 기능과 집단과의 동일시 기능을 國家의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떻든 스포츠는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의 지위를 만들어내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Nation, 1969). 즉 국민들은 자기네 국가의 스포츠팀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까닭에 스포츠를 통해 국민적 통합이 이루어지며 승패에 따라 국가의 지위가 달라지게 된다. 우리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치르면서 체험했던 바가 바로 스포츠의 이같은 기능이었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나라 스포츠가 추구하는 바는 바로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의 지위 향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오늘의 한국 스포츠는 그같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는 또한 다른 나라에 대한 親疎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나라들 사이의 친화의 정도는 얼마나 자유롭게 자주 스포츠팀을 교류하는가로 특정될 수 있다. 친화의 정도가 높은 나라 사이 일수록 스포츠팀의 교류는 자유롭고 빈번할 것이다. 반대로 두나라 사이의 관계가 악

화되면 스포츠 교류는 중단된다.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 국가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 미리 예정된 스포츠교류를 취소하기도 한다. (Tottosy & Wettan, 1970)

뿐만 아니라 스포츠는 내집단의 결속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아시안게임이나 범미주게임, 또는 영연방게임 등이 모두 내집단의 결속을 위한選擇的 國際主義의 표현이다. 이같은 스포츠의 성격은 비단 국가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문화집단이 존재하는 국가내에서 인종문화집단 간의 결속을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캐나다게임이 좋은 예일 것이다.

이상과 같은 스포츠의 정치적 기능은 때에 따라 排他的 國粹主義를 낳기도 한다. 경기에 진 경우 다른 나라 스포츠팀에 대한 적개심이 곧 그 나라에 대한 적대감정으로 일반화되는 것이다. 이같은 감정이 극대화되면 국가간에 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간의 스포츠경기에서 자기팀의 승리를 지나치게 부추기는 매스 미디어의 보도태도는 옳지 못한 것이다. 국가의 정체성 확보와 국가의 지위향상 및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스포츠를 이용함에 있어 우리는 항상 국수주의의 대우와 그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갈등의 조성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5. 社會移動의 機能

스포츠가 사회적 상향이동의 원천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즉 한 개인이 그가 속한 사회계층에서 보다 높은 계층으로 이동하는데 스포츠가 좋은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낮은 계층에 속하는 혹인이나 소수민족 출신들이 스포츠의 영웅이 되거나 혹은 뛰어난 스포츠의 기량을 보임으로써 프로팀에 비싼 계약금을 받고 입단하여 부와 명예를 얻음으로써 상층으로 階層移動을 하는 예는 이미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Loy, 1969). 우리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다. 프로 스포츠 영웅들 뿐만 아니라 아마 스포츠의 영웅들도 하루 아침에 급격한 상향이동을 한다. 이같은 스포츠의 사회이동 기능은 경제체제와 상관없이 어느 사회에서도나 수행되고 있다. 다만 문제는 돈과 결부된 계층이동이 스포츠를 불신하는 경향으로 작용한다는 데 있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은 대체로 순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가 항상 순기능적 축면만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스포츠는 또한 역기능적이기도 하다. 여러 사람들이 지적한 스포츠의 역기능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Snyder & Spreitzer, 1978:34)

첫째, 스포츠는 物質萬能主義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거대한 흥행산업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으며 스포츠산업에 예속되고 有閑階層의 점유물처럼 되었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는 한결음 더 나아가 기존질서와 현상유지를 위한 만족을 부추기는 구실을 하고 있다.

둘째, 원래 스포츠는 놀이의 한 형태로서 개방적이었다. 그러나 스포츠가 놀이와 비공식적 형식에서 변모하여 점차 공식화됨으로써 경쟁을 과도하게 강조하게 되었다. 그 결과 스포츠는 이제 비인간적이며 착취적이고 병적인 가치를 가르치기도 한다.

세째, 스포츠가 놀이의 한 형태로서 비공식 형태로 남아 있었을 때 사회의 모든 영역의 참여가 고무되었다. 그러나 스포츠가 공식화됨으로써 適者生存의 논리를 강조하는 실력사회의 엘리트주의를 지향하게 만들었다.

네째, 체육인들은 비인간적, 착취적, 엘리트주의적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에 있다.

이상과 같은 비판적 관점에서 보면 스포츠는 애타주의와 인간에 대한 책임을 고무하도록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스포츠에서 인간을 도구로 삼는 道具主義와 과도한 경쟁 및 폭력 등이 덜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인간주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스포츠가 놀이의 한 형태로 존재하여야 하며 그럼으로써 스포츠는 사람들의 성이나 타고난 육체적 조건, 정치철학이나 삶의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식적 스포츠는 지나치게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오직 승리뿐”임을 강조하는 나머지 목적달성을 위해 모든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그릇된 규범을 옹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갈수록 공식화되고 흥행산업의 일부로 편성되는 경향을 강하게 보임으로써 참여의 스포츠에서 관람의 스포츠로 변화되고, 물질주의의 가치를 반영하는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그 결과 본래 놀이 형태의 참여 스포츠가 수행했던 순기능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학교 스포츠조차 “오직 승리뿐”임을 추구하는 비인간적이며 병적인 모습으로 존재

함으로써 교육의 목표와는 크게 유리된 채 역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같은 학교 스포츠의 그릇된 관행은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극심하다. 예컨대 미국대학의 경우 평균 B학점이 못되면 선수가 운동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엄격하게 제도화되어 있는데 반해 우리 대학의 경우는 운동선수와 공부와는 아예 상관조차 없는 현실이다.

III. 올림픽이 社會에 미친 影響

1. 政治的 影響

서울올림픽이 우리 나라의 국제관계나 국내정치에 미친 영향은 지대한 것으로 조사결과에 나타나 있다. 그 가운데서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하여 볼 때 적어도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그 하나는 국민의 자긍심을 제고시켰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의식의 국제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93%가 올림픽을 잘 치뤄낸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이와같은 국민적 자긍심의 고양은 다른 기관의 조사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가 올림픽 이후인 10월 10일을 전후하여 실시한 “서울올림픽의 의의와 성과에 관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87%의 응답자들이 올림픽을 통해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다고 응답했으며, 한국일보가 10월 1일에 실시했던 전국전화인터뷰조사결과를 보면 올림픽이 자신에게 미친 가장 큰 영향으로 자부심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약 45%에 이르고 있다. 이와같은 응답결과는 스포츠가 국가의 정체성을 창출해 내는 구실을 한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응답결과는 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적 구조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연령별로 볼 때 나이가 많을수록 더 큰 자긍심을 느꼈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예컨대 20대 연령층에서는 약 39%만이 자긍심을 느꼈다는 데 전적으로 찬성한 반면, 60대 이상의 연령층의 경우는 약 70%가 그러했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표 1〉 참조). 또 교육정도별로 분석한 결과 학력이 낮을수록 자긍심을 느낀 정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국민학교 졸업 이하의 약 56%가 자긍심을 느꼈다는 데 전적으로 찬성한 반면, 대졸 이상의 학력층에서는 약 35%만이 같은 응답을 한 것이다

〈표 1〉 연령별 자금심 느낀 정도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전적 찬성	231(39.0)	292(47.2)	228(55.7)	163(61.0)	81(69.8)	995 (49.7)
약간 찬성	291(49.1)	298(46.8)	166(40.6)	96(36.0)	27(23.3)	869 (43.6)
약간 반대	60(10.1)	31 (5.0)	11 (2.7)	8 (3.0)	8 (6.9)	118 (5.9)
전적 반대	11 (1.9)	6 (1.0)	4 (1.0)	—	—	21 (1.0)
계	593(29.6)	618(30.9)	409(20.4)	267(13.3)	116 (5.8)	2,003(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MIN E.F.	CELLS WITH E.F.<5				
92.56893	12	0.0000	1.216	3 of 20	(15.0%)	

〈표 2〉 교육정도별 자금심 느낀 정도

구 분	국졸이하	중 학 교	고 교	전문 대	대졸이상	계
전적 찬성	168(55.6)	216(58.2)	426(51.3)	51(42.9)	134(35.4)	995 (49.7)
약간 찬성	115(38.1)	136(36.7)	363(43.7)	60(50.4)	194(51.2)	868 (43.4)
약간 반대	18 (6.0)	17 (4.6)	36 (4.3)	7 (5.9)	40(10.6)	118 (5.9)
전적 반대	1 (0.3)	2 (0.5)	6 (0.7)	1 (0.8)	11 (2.9)	21 (1.0)
계	302(15.1)	371(18.5)	831(41.5)	119 (5.9)	379(18.9)	2,002(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MIN E.F.	CELLS WITH E.F.<5				
71.50488	12	0.0000	1.248	4 of 20	(20.0%)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S=5						

(〈표 2〉 참조). 한편 지역별로 보면 경기, 충청지역 출신들이 다른 지역에서 보다 더 강한 자금심을 느낀 것으로 드러났으며, 서울, 강원, 경상, 전라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강하게 자금심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라지역의 경우 자금심을 느꼈다는 데 전적으로 찬성한 응답률은 39%로 어느 지역에서보다 가장 낮았다는 점이 주목된다(〈표 3〉 참조).

다음, 올림픽은 우리 국민의 의식을 국제화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림픽은 국제적 시야와 감각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약 95%가 찬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들에서도 올림픽이 국민의식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즉 ‘언론이 요즈음 동구권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소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에 약 88%의 응답자가 동의하고 있으며 약 79%의 응답자가 ‘올림픽을 계기로 접해본 사회주의(공산주의) 나라의 문화예술에 더욱 친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약 77%의 응답자

〈표 3〉 지역별 자금심 느낀 정도

구 분	서 울	경 기	강 원	충 청	경 상	전 라	계
전적 찬성	26 (44.4)	213 (63.4)	36 (43.9)	132 (65.3)	282 (46.9)	106 (38.8)	995 (49.7)
약간 찬성	236 (46.4)	112 (33.3)	42 (51.2)	59 (29.2)	287 (47.8)	133 (48.7)	869 (43.4)
약간 반대	39 (7.7)	9 (2.7)	3 (3.7)	9 (4.5)	29 (4.8)	29 (10.6)	118 (5.9)
전적 반대	8 (1.6)	2 (0.6)	1 (1.2)	2 (1.0)	3 (0.5)	5 (1.8)	21 (1.0)
계	509 (25.4)	336 (16.8)	82 (4.1)	202 (10.1)	601 (30.0)	273 (13.6)	2,003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MIN E.F. CELLS WITH E.F.<5

84.19096 15 0.0000 0.860 5 of 24(20.8%)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S=4

들이 공산주의 국가와 경제뿐 아니라 정치외교적으로도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국민의식의 국제화는 다른 기관의 조사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西江大 言論文化研究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91%가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가 보다 향상될 것으로 보았으며, 올림픽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국제적인 시야와 안목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약 79%의 응답자들이 찬성했다. 그리고 약 88%가 올림픽이 앞으로 우리나라와 소련, 중국, 동구 등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한국일보가 실시했던 조사의 경우에도 올림픽이 자신에게 미친 가장 큰 영향으로 많이 응답한 순서로 두 번째가 '세계를 보는 안목'(약 23%)이었다. 이와 함께 이번 올림픽에서 좋았던 점으로 세 번째 많은 응답은 '동구권과 교류'(약 18%)였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들은 서울올림픽이 우리 국민의식을 국제화시키고 국민의 세계를 보는 관점의 지평을 확대시켰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그같은 영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서울올림픽이 기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서울올림픽이 우리 국민의식을 국제화시켰다는 것의 한 구체적 변화는 공산권 국가들에 대한 인식의 일대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비로소 冷戰論理를 극복하게 되는 계기를 올림픽이 만들어 준 것으로 정치, 사회, 문화에 걸쳐 큰 사

〈표 4〉 지역별 국제화 여부

구 분	서 울	경 기	강 원	충 청	경 상	전 라	계
전적 찬성	286 (56.3)	222 (66.7)	42 (51.2)	143 (71.1)	354 (58.7)	129 (47.3)	1,176 (58.8)
약간 찬성	189 (37.2)	103 (30.9)	31 (37.8)	53 (26.4)	220 (36.5)	129 (47.3)	725 (36.3)
약간 반대	31 (6.1)	5 (1.5)	8 (9.8)	3 (1.5)	24 (4.0)	13 (4.8)	84 (4.2)
전적 반대	2 (0.4)	3 (0.9)	1 (1.2)	2 (1.0)	5 (0.8)	2 (0.7)	15 (0.8)
계	508 (25.4)	333 (16.7)	82 (4.1)	201 (10.1)	603 (30.2)	273 (13.7)	2,000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MIN E.F. CELLS WITH E.F.<5

54.94412 15 0.000 0.615 7 of 24(29.2%)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S=7

〈표 5〉 교육정도별 동구권 보도 의견

구 분	국졸이하	중 학 교	고 교	전 문 대	대졸이상	계
찬 성	241 (80.9)	312 (84.6)	745 (89.9)	109 (91.6)	357 (94.4)	1,764 (88.5)
반 대	57 (19.1)	57 (15.4)	84 (10.1)	10 (8.4)	21 (5.6)	229 (11.5)
계	298 (15.0)	369 (18.5)	829 (41.6)	119 (6.0)	378 (19.0)	1,993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MIN E.F. CELLS WITH E.F.<5

38.48027 4 0.0000 13.673 NONE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S=14

회변동의 단서가 되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올림픽이 국제적 시야와 감각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견을 지역적으로 분석해 볼 때 경기와 충청지역에서 전적으로 찬성하는 응답률이 높았던 반면, 전라지역에서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표 4〉 참조). 또한 언론의 동구권보도에 대해서는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찬성률이 높았다는 점도 참고해야 하겠다(〈표 5〉 참조).

2. 國民統合

서울올림픽이 수행한 사회적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國民統合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조사결과에서 잘 뒷받침되고 있다.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의 조사결과 가운데 서울올림픽이 국민통합의 기능을 수

행했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응답자의 약 93%가 서울올림픽을 잘 치뤄낸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다는 점, 이것은 물론 국가의 정체성 강화라는 정치적 의미도 지니나, 동시에 국민통합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회심리적 토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국민의 협동심이 고양되었다는데 약 87%의 응답자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뤄지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으로 약 63%의 응답자들이 국민 각자의 성원과 협조를 지적했다는 점 등이 그러하다.

서울올림픽이 국민통합의 기능을 수행했다는 것은 다른 기관의 조사결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즉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의 조사결과를 보면 약 88%의 응답자들이 이번 올림픽에 전국민의 호응도가 높았다고 보고 있으며, 약 79%가 이번 올림픽으로 인해 우리 국민 모두의 협동심이 고양되었다는 데 동의하고 있고, 한국일보가 실시한 조사에서 이번 올림픽에서 좋았던 점으로 국위선양(약 32%), 다음으로 ‘국민적 일체감’(약 31%)을 응답자들이 지적했다는 것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같은 올림픽이 수행한 국민통합의 기능은 집단의식과 동지애를 창출하는 스포츠의 社會情緒的 기능에 기초한 것이라는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즉 올림픽이 창출한 국민통합은 우리 나라라는 국가 내지 민족집단과 자신과를 연상함으로써 형성되는 애국심 혹은 동족애라는 사회정서일 뿐, 그것이 우리사회의 계층간의 갈등이나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한다는 의미의 통합은 아니라는 점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약 53%의 응답자들이 올림픽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했다는 데 동의하고 있으며, 약 47%가 그렇지 않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올림픽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했는가의 여부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의견분포는 크게 의미있는 것은 아니지만 응답자의 과반수를 넘는 사람들이 위화감을 조성했다고 본다는 것은 주목할만 하다고 하겠다. 이를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구조에 따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연령별로 보았을때 60대 이상의 연령층을 제외하고 나이가 젊은 층일수록 올림픽이 위화감을 조성했다고 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올림픽이 경제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했다는 데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응답률을 보

〈표 6〉 연령별 계층위화감 조성 여부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계
전적 찬성	147 (24.8)	120 (19.4)	52 (12.8)	32 (12.1)	24 (21.1)	375 (18.8)
약간 찬성	209 (35.2)	221 (35.8)	128 (31.6)	88 (33.3)	35 (30.7)	681 (34.2)
약간 반대	156 (26.3)	187 (30.3)	163 (40.2)	102 (38.6)	31 (27.2)	639 (32.1)
전적 반대	81 (13.7)	89 (14.4)	62 (15.3)	42 (15.9)	24 (21.1)	298 (15.0)
계	593 (29.8)	617 (31.0)	405 (20.3)	264 (13.2)	114 (5.7)	1,993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MIN E.F. CELLS WITH E.F.<5

50.97548 12 0.0000 17.046 NONE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S=14

〈표 7〉 교육정도별 계층위화감 조성 여부

구 분	국졸이하	중 학 교	고 교	전 문 대	대졸이상	계
전적 찬성	42 (14.1)	69 (18.8)	143 (17.2)	25 (21.0)	95 (25.1)	374 (18.8)
약간 찬성	90 (30.2)	114 (31.1)	306 (36.9)	41 (34.5)	130 (34.3)	681 (34.2)
약간 반대	127 (42.6)	121 (33.0)	243 (29.3)	39 (32.8)	109 (28.8)	639 (32.1)
전적 반대	39 (13.1)	63 (17.2)	137 (16.5)	14 (11.8)	45 (11.9)	298 (15.0)
계	298 (15.0)	367 (18.4)	829 (41.6)	119 (6.0)	379 (19.0)	1,992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MIN E.F. CELLS WITH E.F.<5

37.23040 12 0.0002 17.802 NONE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S=15

면 20대에서 약 25%, 30대 약 19%, 40대 약 13%, 50대 약 12%, 60대 이상층에서 약 21%였다(〈표 6〉 참조). 또한 교육별로 보면 학력이 높은 층일수록 위화감을 조성했다는 응답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화감을 조성했다는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응답률을 보면 국민학교 졸업이하 층에서 약 14%, 중졸 약 19%, 고졸 약 17%, 전문대졸 약 21%, 대졸 이상층에서 약 25%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한편 서울올림픽이 계층 및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약 37%가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 반면 약 91%

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를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구조별로 분석해 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도움이 안되었다는 응답률도 높아, 국민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층에서 약 55%, 중졸 약 55%, 고졸에서 약 62%, 전문대 약 62%, 대졸이상층에서 약 73%로 나타났다(〈표 8〉 참조). 연령별로는 나이가 젊은 층일수록 도움이 안되었다는 응답률이 높아 20대에서 약 67%, 30대에서 약 65%, 40대 약 59%, 50대 약 53%, 60대 이상 층에서 약 45%의 응답률을 보였다(〈표 9〉 참조). 또한 지역별로는 경기, 충청, 경상지역에서

〈표 8〉 교육정도별 계층 및 지역갈등 해소 여부

구 분	국졸이하	중 학 교	고 교	전 문 대	대졸이상	계
많은 도움	26 (8.7)	52 (14.1)	79 (9.5)	14 (11.7)	17 (4.5)	188 (9.4)
약간 도움	108 (36.1)	116 (31.4)	234 (28.2)	32 (26.7)	86 (22.8)	576 (28.8)
별 도움 안됨	126 (42.1)	163 (44.2)	415 (49.9)	67 (55.8)	181 (47.9)	952 (47.7)
전혀 도움 안됨	39 (13.0)	38 (10.3)	103 (12.4)	7 (5.8)	94 (24.9)	281 (14.1)
계	299 (15.0)	369 (18.5)	831 (41.6)	120 (6.0)	378 (18.9)	1,997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MIN E.F. CELLS WITH E.F.<5
78.81003 12 0.0000 11.297 NONE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S=10

〈표 9〉 연령별 계층 및 지역갈등 해소 여부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계
많은 도움	44 (7.4)	51 (8.2)	37 (9.1)	37 (13.9)	19 (16.5)	188 (9.4)
약간 도움	154 (26.1)	163 (26.3)	129 (31.7)	87 (32.7)	44 (38.3)	577 (28.9)
별도움 안됨	298 (50.4)	314 (50.7)	191 (46.9)	109 (41.0)	40 (34.8)	952 (47.6)
전혀 도움 안됨	95 (16.1)	91 (14.7)	50 (12.3)	33 (12.4)	12 (10.4)	281 (14.1)
계	591 (29.6)	619 (31.0)	407 (20.4)	266 (13.3)	115 (5.8)	1,998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MIN E.F. CELLS WITH E.F.<5
37.36760 12 0.0002 10.821 NONE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S=9

〈표 10〉 지역별 계층 및 지역갈등 해소 여부

구 분	서 울	경 기	강 원	충 청	경 상	전 라	계
많은 도움	38 (7.5)	42 (12.6)	7 (8.5)	21 (10.3)	62 (10.3)	18 (6.6)	188 (9.4)
약간 도움	123 (24.3)	122 (36.6)	23 (28.0)	64 (31.5)	190 (31.6)	55 (20.1)	577 (28.9)
별도움 안됨	252 (49.8)	142 (42.6)	42 (51.2)	87 (42.9)	292 (48.6)	137 (50.2)	952 (47.6)
전혀 도움 안됨	93 (18.4)	27 (8.1)	10 (12.2)	31 (15.3)	57 (9.5)	63 (23.1)	281 (14.1)
계	506 (25.3)	333 (16.7)	82 (4.1)	203 (10.2)	601 (30.1)	273 (13.7)	1,998 (100.0)

CHI-SQUARE D.F. SIGNICANCE MIN E.F. CELLS WITH E.F.<5

72.69520 15 0.0000 7.716 NONE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S=9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률이 많았고, 서울, 강원, 전라지역에서 도움이 안되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특히 전라지역의 경우 도움이 안되었다는 응답률이 약 73%로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높았다(〈표 10〉 참조).

3. 社會規範 및 秩序에 미친 影響

서울올림픽은 부분적으로나마 우리의 사회규범과 질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올림픽으로 인해 식당, 상점 등에서 각종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었다는 데 대해 약 63%의 응답자들이 동의했으며, 약 35%의 사람들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올림픽이 국민들 사이에 사치와 소비풍조를 조장했는가에 대해서는 약 53%의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표시한 반면 약 46%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한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의 조사결과를 보면 올림픽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교통질서가 매우 개선되었다는 의견에 약 59%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응답도 약 51%였다.

이렇게 볼 때 올림픽을 원활하게 치루기 위해 정부와 올림픽조직위원회 등이 벌였던 교통질서 및 서비스 개선 등의 캠페인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서울올림픽을 통해 거둔 가장 큰 규범적 효과는 국민들의 협동심 양양이라고 생각된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국민들은 이번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뤄지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국민 각자의 성원과 협조라고 보았으며, 올림픽을 통해 우리 국민의 협동심이 고양되었다는 데 약 87%의 응답자들이 동의했다.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의 조사결과에서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협동심이 높아졌다는 데 대해 약 79%가 찬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림픽이 국민의 협동심을 고양했다는 데 대한 의견은 교육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이 높아 국민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층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약 88%인데 반해 대졸 이상층에서는 약 80%로 나타났다

〈표 11〉 교육정도별 협동심 고양 여부

구 분	국졸이하	중 학 교	고 교	전 문 대	대졸이상	계
전적 찬성	117 (39.0)	129 (35.0)	278 (33.7)	42 (35.9)	92 (24.3)	658 (33.1)
약간 찬성	147 (49.0)	208 (56.4)	461 (55.8)	64 (54.7)	211 (55.8)	1,091 (54.8)
약간 반대	34 (11.3)	29 (7.9)	76 (9.2)	10 (8.5)	62 (16.4)	211 (10.6)
전적 반대	2 (0.7)	3 (0.8)	11 (1.3)	1 (0.9)	13 (3.4)	30 (1.5)
계	300 (15.1)	369 (18.5)	826 (41.5)	117 (5.9)	378 (19.0)	1,990 (100.0)
CHI-SQUARE	D.F.	SINGIFICANCE	MIN E.F.	CELLS WITH E.F.<5		
44.10644	12	0.0000	1.764	2 of 20(10.0%)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S=17						

〈표 12〉 지역별 협동심 고양 여부

구 분	서 울	경 기	강 원	충 청	경 상	전 라	계
전적 찬성	135 (26.7)	132 (39.9)	36 (43.9)	102 (50.5)	192 (32.0)	62 (22.9)	659 (33.1)
약간 찬성	297 (58.8)	175 (52.9)	43 (52.4)	83 (41.1)	339 (56.5)	154 (56.8)	1,091 (54.8)
약간 반대	60 (11.9)	24 (7.3)	3 (3.7)	13 (6.4)	64 (10.7)	47 (17.3)	211 (10.6)
전적 반대	13 (2.6)	—	—	4 (2.0)	5 (0.8)	8 (3.0)	30 (1.5)
계	505 (25.4)	331 (16.6)	82 (4.1)	202 (10.1)	600 (30.1)	271 (13.6)	1,991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MIN E.F.	CELLS WITH E.F.<5			
89.00920	15	0.0000	1.236	4 of 24(16.7%)			
NUMBER MISSING OBSERVATIONS=16							

(〈표 11〉 참조). 한편 지역별로 보았을 때 긍정적인 응답률은 경기, 강원, 충청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서울과 전라지역에서 낮았다(〈표 12〉 참조).

IV. 結 論

사회변동은 사회구조에 일어나는 변화를 말하며, 그같은 변동을 초래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올림픽도 사회변동을 자극하는 계기가 된 것임에 틀림없겠으나 정치, 경제적인 가시적 효과들, 예컨대 국위선양,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및 통상기회의 확대 등과 같이 현시적이며 계측 가능한 결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스포츠가 현대사회의 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누적적 효과로 볼 수밖에 없듯이 올림픽이 초래한 사회변동 또한 장기적으로 관찰해야 할 것이다. 올림픽이 사회에 미친 영향은 올림픽행사 그 자체로서만 평가될 성질의 것이라기보다 올림픽을 준비해온 과정 전체의 총체적 효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올림픽이 끝난 뒤의 일회만의 사후조사로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제시한 조사결과들, 예컨대 국민의 자긍심을 복돋우고, 국민의식을 국제화시켰으며, 애국심과 동족애를 고양함으로써 사회정서적으로 국민통합기능을 수행했고, 협동심과 사회질서를 함양하거나 개선했다는 의견이나 평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회 각 부문의 변화를 초래할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적어도 사회변동의 측면에서 볼 때 서울올림픽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또 얼마나 주었는가를 지금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속단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일어날 여러 변화들이 어떻게 올림픽의 영향과 연관되었는지를 밝히는 작업도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서울올림픽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일단 올림픽으로 인해 변화되었거나 성취되었다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결과로서 추론할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조사결과이기는 하나 본 연구의 결과는 올림픽이 사회에 미친 영향의 일부를 평가하고 추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조사결과가 지니고 있는 중요한 올림픽의 영향을 재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올림픽을 통해 우리 국민이 자긍심을 갖게 됨으로써 일제식민통치 시대와 8·15 이후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지배하에서 형성된 민족적 열등

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민족의 自主性 회복과 깊이 연관되는 것으로 民族自存의 기틀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사회가 대외종속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다.

둘째, 국민의식의 국제화는 우리의 위상을 보는 지평을 확대한 것으로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적어도 세계 속에서 파악하고 세계로 뻗어 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민족의 자긍심과 결부시켜 본다면 이같은 국제화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세계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종속이 아닌 자주의 자세로 세계와 관계를 맺는 긍정적인 결과로 전진될 수 있다고 전망해도 좋을 것이다.

세째, 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국민의식의 국제화는 특히 공산권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해 왔던 냉전논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일대 이데올로기적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 결과 앞으로 분단상황과 결부하여 우리를 억압하는 도구로 이용된 이데올로기라는 무기가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사상의 자유를 확대하는 동시에 정치적 자유의 폭을 그만큼 넓히게 되는 동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네째, 애국심과 동족애와 같은 사회정서면에서의 국민통합은 올림픽이 권력과 부의 불평등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또 그와 같은 결과를 올림픽이 가져올 수 없는 한계를 명백히 지닌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지역감정이 야기하는 갈등만은 사회정서적으로 국민감정을 통합할 동인만 주어진다면 어렵지 않게 해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參 考 文 獻

경제기획원

1986 「85년 한국의 사회지표」

Bouet, M.

1966 "The Function of Sport in Human Relations," *International Review of Sports Sociology* 1.

Edward, H.

1973 "The Black Athlete on the College Campus," in J. Talamini & C. Page

- (eds.), *Sport and Society*. Boston.
- Keating, J.W.
 1965 "Character or Catharsis," *Catholic Educational Review* 63.
- Loy, J.W.
 1969 "The Study of Sport and Social Mobility," in G.S. Kenyon (ed.), *Sociology of Sport*, Chicago.
- Nation, A.
 1969 "Sport and Politics," in J.W. Loy & G.S. Kenyon (eds.), *Sport, Culture and Society*, N.Y.
- Nobert, Elias and Dunning, Eric
 1970 "The Quest for Excitement in unexciting Societies," in Guenther Lueschen (ed.), *The Cross Cultural Analysis of Sports and Games*, Urbana Champaign, Ill: Stipes.
- Schafer, W.E.
 1968 "Some Social Sources and Consequences of Inter-scholastic Athletics: The Case of Participation & Delinquency," *International Review of Sports Sociology* 4.
- Snyder, Eldon E. and Spreitzer, Elmer
 1978 *Social Aspects of Spor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Spreitzer, E. and Snyder, Eldon E.
 1975 "The Psychological Functions of Sport as Perceived by the General Popul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Sport Sociology* 10 (Nos. 3-4).
- Stevenson, Christopher L. and Nixon, John E.
 1979 "A Conceptual Scheme of the Social Functions of Sport," in A. Yiannakis, et al., *Sport Sociology: Contemporary Themes*, Duhueque, Iowa: Kendall/Hunt.
- Tottosy, M. and Wetton, R.
 1970 "The Cold War and Olympic Games," Presentation at the Annual Conferences of the National College Physical Education Association for Men, Portland, Oregon, December.